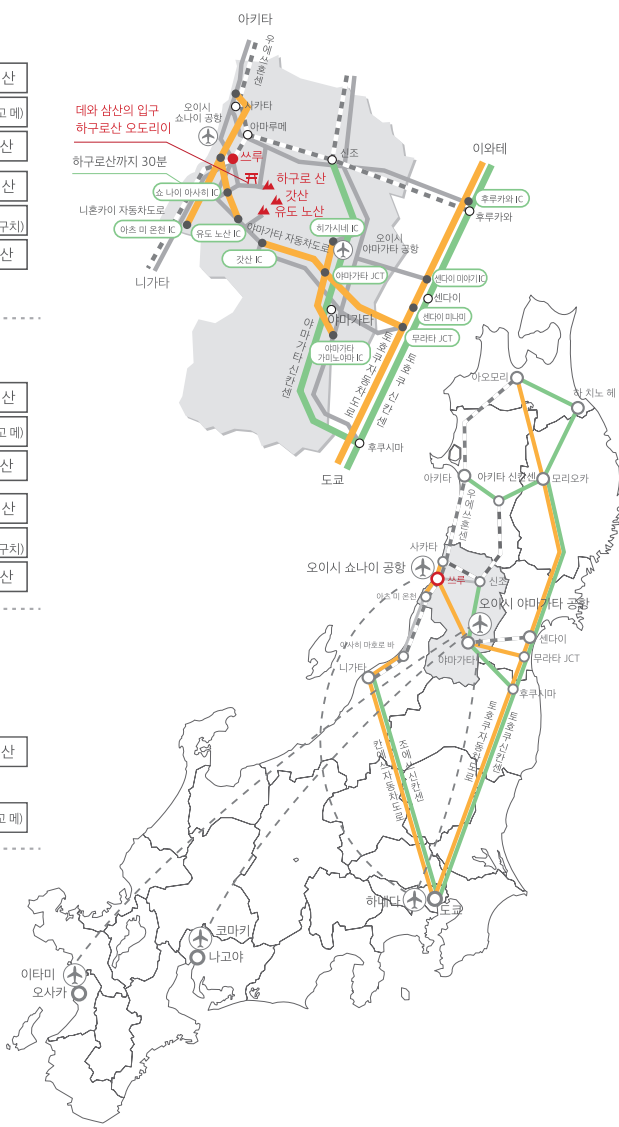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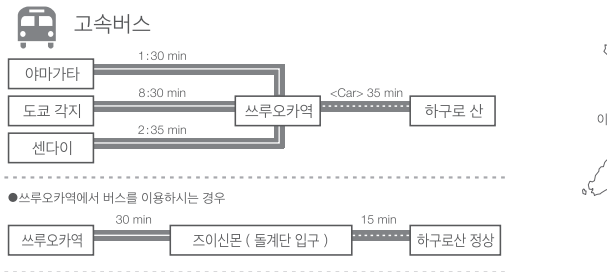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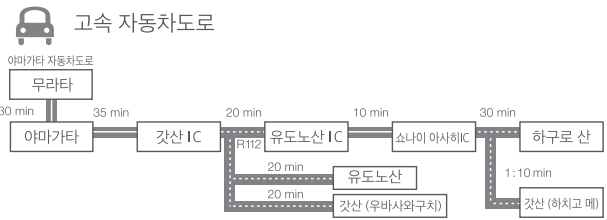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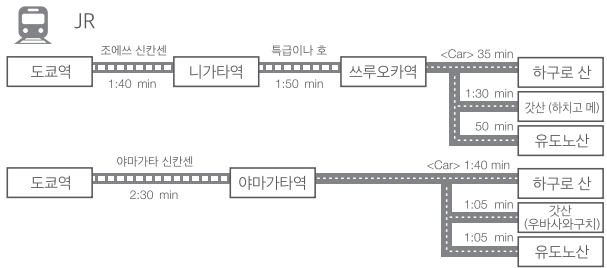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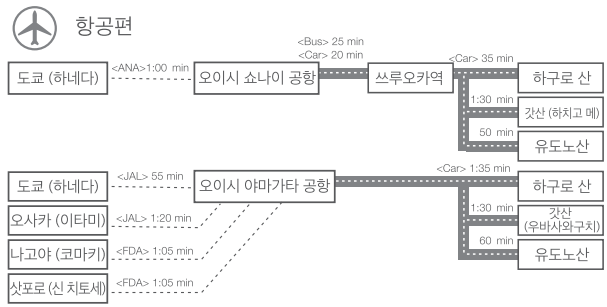


오시는 길



자기 자신을 찾아 가다

出羽三山

Dewa Sanzan



일본유산이란 각 지역의 역사적 매력과 특색을 통해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말해주는 이야기를 일본 문화청이 인증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유·무형문화재군을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종합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고, 국내외에 전략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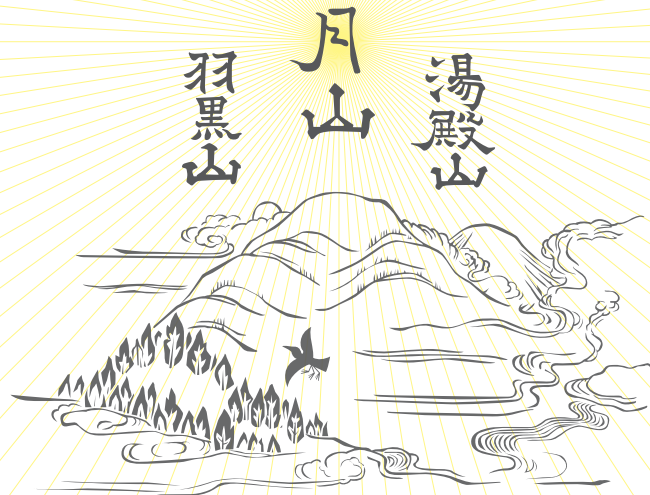
데와 삼산「새로운 나라 다시 태어나는 여행」추진협의회

(사무국 : 문화 진흥 · 문화재과)

TEL. 023-630-3342

Website: <https://nihonisan-dewasanzan.jp/>





데와 삼산

자연과 신앙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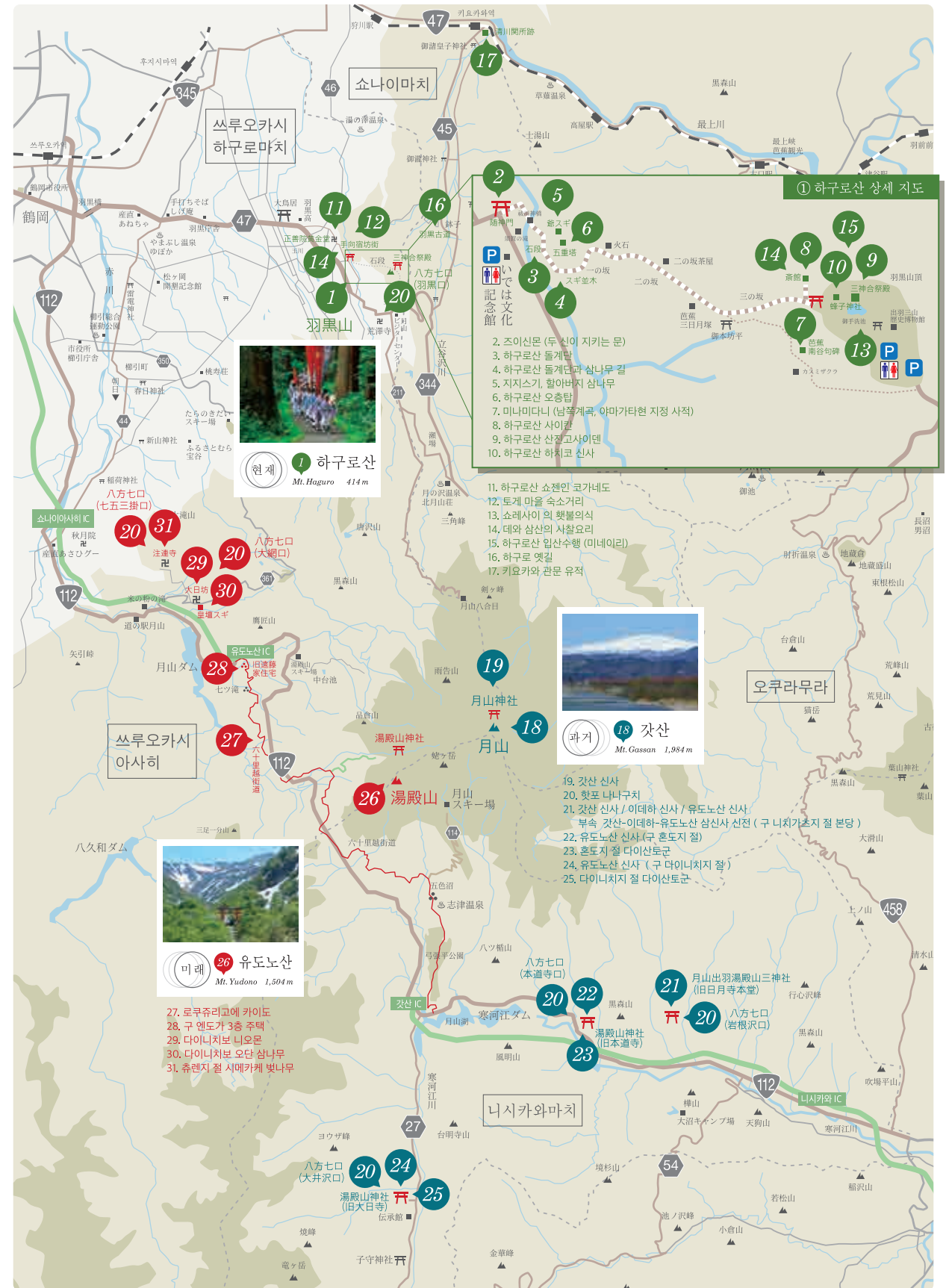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데와 삼산.

하구로산, 갓산, 유도노산의 3대 영산을 둘러보는 것은, 죽음과 재생을 넘나들며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여행」으로 알려져 왔다.

신성한 산의 영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3대 영산의 신들과 부처님에게 기도를 올린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순수한 영혼.

몸도 마음도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 내일을 향한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전되는 특별한 장소.



자연과 신앙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여행」



야마가타현 중앙에 위치한 데와 삼산의 웅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태어난 하구로 슈겐도(修驗道, 산속에서 수행을 하는 고대 일본의 산악 신앙)에서, 하구로산은 사람들의 현세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현재의 산, 갓산은 그 산세가 높고 수려하므로 조상의 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과거의 산, 그리고 유도노산은 온천이 솟아나오는 붉고 거대한 바위가 새로운 탄생을 상징한다고 하여 미래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대 영산을 순례하는 것은 에도 시대 서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여행’으로 널리 퍼져나갔으며, 지역 주민들의 지원 아래 산의 자연과 신앙을 이어주는 여행으로서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행은 신의 영역과의 경계인 하구로산 오도오리(大鳥居, 신사 입구에 세우는 큰 기둥문)에서 시작되며, 즈이신문(隨神門)은 더욱 깊은 신의 영역으로 통하는 입구입니다. 참배로의 돌계단 양 옆으로는 하늘을 덮을 듯한 삼나무들이 뻗뻗이 산 정상까지 늘어서 있어, 찾는 이에게 자연의 영기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하며,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여 내일을 위한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여행’의 시작

데와 삼산은 야마가타현의 중앙에 우뚝 솟은 하구로산(414m), 갓산(1,984m), 유도노산(1,504m)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최고봉인 갓산 양 옆으로 하구로산과 유도노산이 이어지는 수려한 능선을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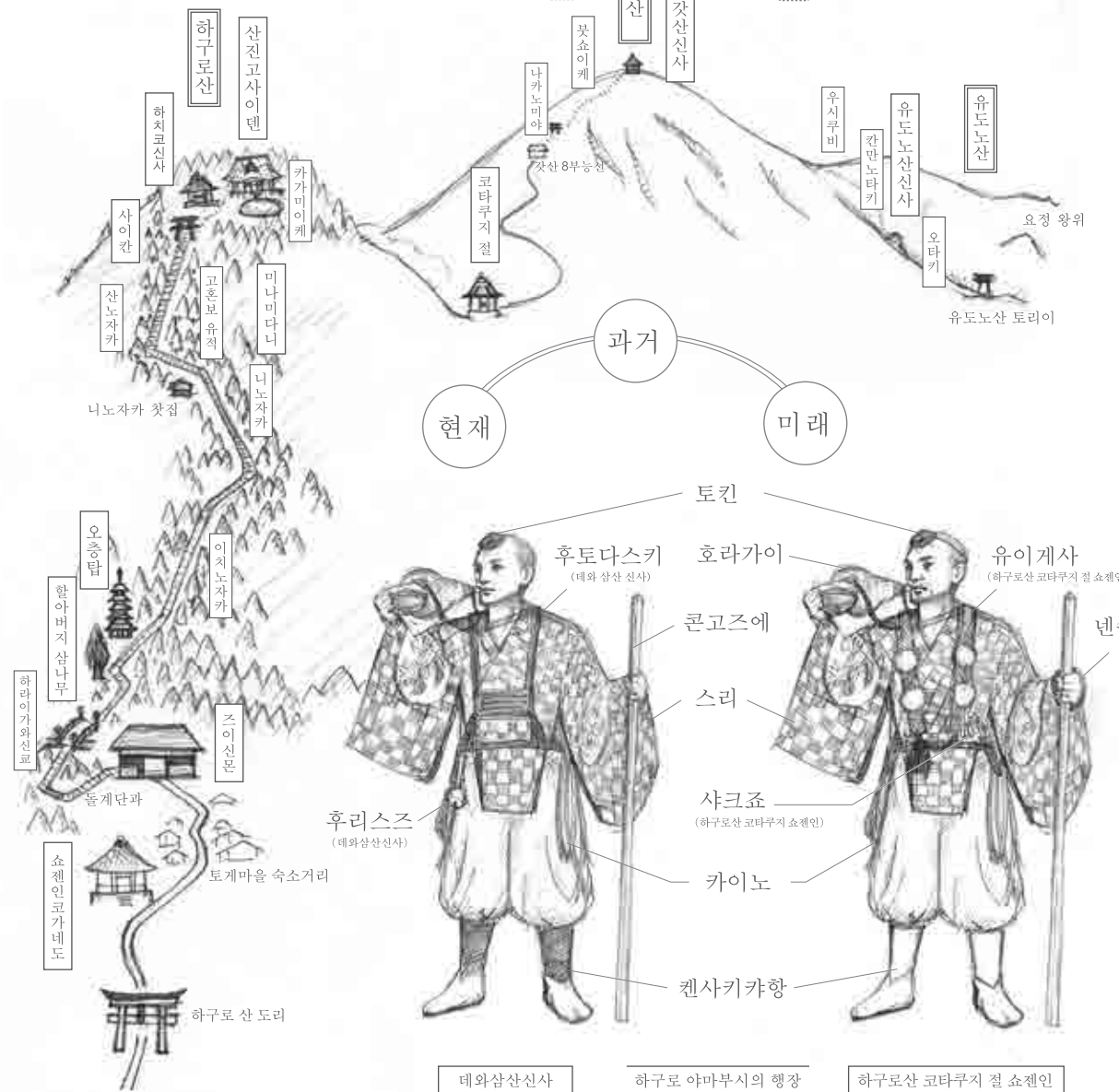
약 1,400년 전, 스승 천황의 아들인 하치코 왕자가 처음 사찰을 세웠다고 알려진 하구로산은 하구로 슈겐도의 수행 장소이자 증추가 되는 곳입니다. 슈겐도란 자연신앙에 불교와 밀교(密敎)가 융합되어 나타난 일본 고유의 산악신앙입니다. 하구로 슈겐도에서는 각 산들의 특징에 따라 ‘하구로산은 현세의 행복을 기원하는 산 (현재), 갓산은 사후의 안락과 왕생을 기원하는 산 (과거), 유도노산은 환생을 기원하는 산 (미래)’이라고 여기며, 살아 있는 동안 새로운 영혼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데와 삼산의 순례는 에도시대 서민들 사이에서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순회하며 ‘다시 태어나는 여행 (하구로 슈겐도에서는 삼관삼도(三關三渡)의 길)’으로서 널리 퍼졌습니다.

하구로산 ‘가을의 입산수행’ ~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여행의 원점 ~

사람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산은 신 자체이자 신령이 깃든 성지이며, 새로운 생명을 길러내는 영적인 장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야마부시(山伏, 슈겐도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말합니다.)가 영적인 장소인 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현세의 자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태내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마부시는 스스로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흰옷 차림으로 ‘저승’을 상징하는 산을 뛰어다니고, 고행을 통해 세속의 부정을 떨쳐냄으로써, 자신의 몸에 산의 신령이 깃들게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영혼으로서 다시 한번 ‘생(生)’을 얻은 뒤 산을 나와 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야마부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즉신성불(即身成佛, 현재의 육신을 가지고 깨우침을 얻음)을 위한 수행을 하고, 수행을 통해 산에서 얻은 신성한 능력으로 살아 있는 만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과 환생의 과정을 본 뜬 의식으로, 현재에도 남아 있는 유일한 수행 방법이 하구로 슈겐도의 ‘가을의 입산수행’입니다.

현재는 신불분리정책(神仏分離政策)으로 인해, 데와 삼산 신사에서 열리며 메이지시대 이후 신도(神道)의 의식으로 개편된 하구로과 고슈겐도(羽黒派古修驗道)의 ‘가을의 입산수행’과 하구로산 슈겐 본종 하구로산 코타쿠지 절(荒瀬寺)에서 열리며 신불분리 이전의 법규를 계승하여 신도와 불교가 융합된 형태의 10가지 수행을 하는 불교식의 ‘가을의 입산수행’의 두 가지 의식이 매년 거행되고 있습니다. (신불분리정책 : 일본 메이지시대의 신도(神道)와 불교(佛敎)를 분리하고자 하는 정책)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여행 : 주요 경로》





1

하구로산

Mt. Haguro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시작

하구로산은 개조(開祖) 하치코왕자가 현재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부처(관세음보살)를 모셨다고 전해지며, 데와 삼산 중 가장 마을에 가깝게 위치하여 사람들의 현재에서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산이었으므로 '현재를 나타내는 산'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현재의 행복을 주는 부처) = 보타락정토 = 현재
이데하노카미(데와 지역의 수호신), ※정토 : 부처의 세계
이나쿠라타마노미코토(곡물의 신)

4 하구로산 돌계단과 삼나무 길

Hagurosan Suginamiki

(국가 지정 특별 천연기념물, 미술쟁 그린가이드 재팬 - 별 3개 획득)

수령 350~500년의 삼나무 총 580여 그루가 참배로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길. 장엄한 삼나무들의 사이를 걸어가는 행장을 차려 입은 야마부시와 수행자의 행렬은 여름에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풍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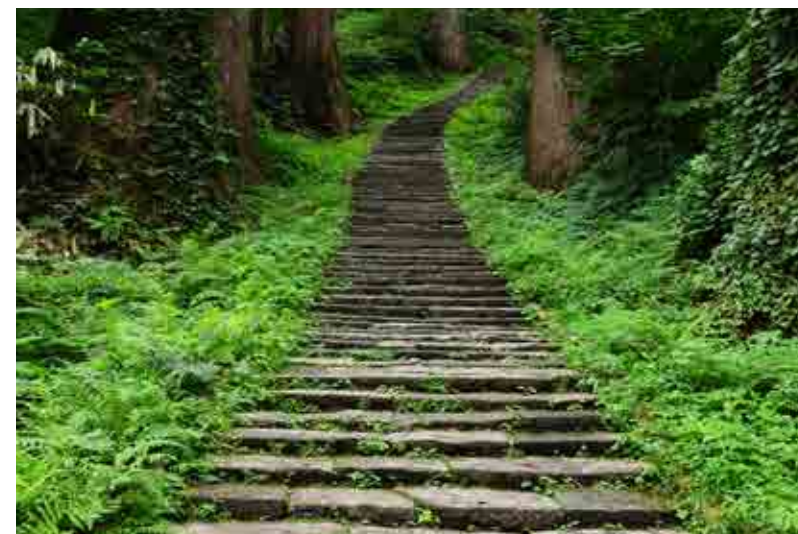


2

즈이신문 (두 신이 지키는 문)

Hagurosan Zuishinmon

하구로산의 입구. 이곳에서부터 2,446개의 돌계단이 시작됩니다. 메이지 시대의 신분분리(神仏分離) 정책 이전에는 '니오몬(仁王門, 인왕문)'으로 불렸습니다. 안치되어 있던 인왕상은 현재 산기슭에 위치한 쇼젠인(正善院) 코가네도(黄金堂) 내에 모셔져 있습니다.



3

하구로산 돌계단

Hagurosan Ishidan

즈이신문에서 산의 정상까지 이어지는 2,446개, 약 2km의 돌계단. 에도시대, 하구로산의 50대 관리책임자였던 텐유(天有)가 13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정상까지는 약 1시간, 돌계단에는 33개의 조각이 새겨져 있으며 모두 찾아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15

하구로산 입산수행

Hagurosan Mineiri (미네이리)

개조(開祖) 하치코왕자의 수행을 좇아가는 하구로산 야마부시의 입산수행. '여름의 입산수행'은 일반 참배자가 3대 영산을 달려서 올라가는 여름의 참배를 의미하며, '가을의 입산수행'은 야마부시의 양성을 목적으로 약 1주일간 산속에서 수행을 하는 것, '겨울의 입산수행'은 두 명의 야마부시에 의한 100일간의 기도 수행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끝나는 설달 그믐날에 하구로산 정상에서 행해지는 '쇼례사이(松例祭)'는 수행에서 얻은 영험한 힘을 거루는 자리입니다.



5 지지스기, 할아버지 삼나무

Hagurosan Jijisugi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수령이 1,000년 이상이라고 알려진 삼나무 고목. 뿌리 둘레 10.5m, 줄기 둘레 8.25m, 하구로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삼나무입니다.

6 하구로산 오층탑 (국보)

Hagurosan Gojunotou

헤이안시대에 타이라노 마사카도(平頼門)가 창건하였으며, 현재의 탑은 오에이5년(1372년)에 재건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붕은 일본 전통 코케라부키(柿葺, 얇은 나무판을 겹쳐서 지은 지붕) 양식이며, 칠을 전혀 하지 않은 삼간오층(三間五層)의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지어진 일본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탑 중 하나입니다.



7 미나미다니 (남쪽계곡) (야마가타현 지정 사적)

Hagurosan Minamidani

'산노자카 언덕'이 시작되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뻗어있는 길을 따라 약 400m정도 가면, 일본의 유명한 시인 마츠오 바쇼가 '오쿠노호소미치(おくのほそ道, 바쇼가 쓴 유명한 기행문)'의 여행에서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절(執行寺)의 유적, 통칭 '미나미다니(南谷, 남쪽계곡)'가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있는 듯,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고즈넉한 장소로 하구로산의 숨은 명소 중 하나입니다.



8 하구로산 사이칸 (쓰루오카시 지정 유형문화재)

Hagurosan Saikan

'산노자카 언덕'을 다 올라가면 구 케조인(華藏院)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행자를 위한 30여 채의 숙소가 있었지만, 메이지 시대에 신도와 불교가 분리되며 유일하게 하구로 사이칸만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참배객을 위한 기도 장소 및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구로 야마부시들이 '겨울의 입산수행'을 할 때의 기도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9 하구로산 산진고사이덴

Hagurosan Sanjin Gosaiden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하구로산 정상에 있는 신진(구 하구로산 잣코지 절, 寂光寺)으로 하구로산·갓산·유도노산의 삼신을 합사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건축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귀중한 카야부키(茅葺, 일본의 전통 초가지붕) 양식의 목조건축물입니다. 본전 앞에 있는 '미타라시이케(御手洗池) 연못'은 헤이안 시대부터 구리거울이 봉납되어 있기 때문에 '카가미이케(鏡池) 연못'(거울연못)이라고도 불립니다.



11 하구로산 쇼젠인 코가네도

Hagurosan Shozenin Koganedo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예전에는 하구로산 정상에 있는 다이린도(大金堂, 현 하구로산 산진고사이덴/三神合祭殿)와 더불어 산기슭의 쇼린도(小金堂)라고도 하였으며, 33개의 관음상이 황금빛으로 빛난다고 하여 코가네도(黄金堂, 황금당)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타케다이니치도(於竹大日堂)에서는 근대에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었던 오타케 대일여래를 참배할 수 있습니다.



13 쇼레사이의 햇불의식 (오오타이마즈고지)

Shoreisai Otaimatsugyoji (국가 지정 중요 무형민속문화재)

쇼레사이(松例祭)는 토게 마을에서 뽑힌 '마츠리지리(松型)'라 불리는 두 명의 원로 야마부시가 100일에 걸쳐 오곡의 풍년과 천하의 태평을 기원하는 '겨울의 입산수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마 '쓰쓰가무시'를 퇴치하는 오타이마즈(大松明)행사는 매년 설날 그믐에서 이듬해 초하루까지 밤새도록 열립니다.



10 하구로산 하치코 신사

Hagurosan Hachiko Jinja (쓰루오카시 지정 유형문화재)

오래 전 사람들을 여러 가지 고뇌로부터 구원했다고 전해지는 데와 삼산의 개조(開祖)·하치코 왕자를 모시는 신사. 본래는 카이잔도(開山堂)라는 불교 사찰이었으나, 신불분리정책에 의해 하구로산이 신도의 산이 됨에 따라 메이지 7년(1874년)에 하치코 신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2 토게 마을 숙소 거리

Toge Shukubo-gai (쓰루오카시 역사적 풍치 유지·상향 계획 중요구역)

하구로산의 입구에 위치한 토게 마을은 수행자들의 숙소가 즐비한 곳으로, 예로부터 데와 삼산 신앙과 슈겐도를 뒷받침해 온 지역입니다. 단체 및 개인 참배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은 예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참배객의 안내인 역할을 하거나 사찰음식의 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14 데와 삼산의 사찰요리 (精進料理, 쇼진료리)

Dewasanzan Shojinryori

산이 길러낸 귀중한 식재료를 전통의 방법으로 정성스럽게 조리한 데와 삼산의 사찰요리. 데와 삼산을 참배하는 사람들은 사찰요리를 먹으며 몸을 정갈하게 한 뒤 산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18

갓산

(국가 지정 천연 기념물)

Mt. Gassan

아미타여래 (사후의 구원을 관장하는 부처) = 극락정토 = 과거
즈쿠요미노미코토 (밤을 관장하는 신 · 물을 지배하는 신)

해발 1,984m의 높고 수려한 산세로 인해 대곳적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었으며, '선조의 혼령이 머무는 산' 이라 하여 '과거의 세상을 나타내는 산' 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갓산은 극락정토를 의미하며, 특히 8부 능선에 있는 미다가하라에는 습원이 펼쳐져있어, 고산식물들이 여기저기 꽃을 피우는 신비로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달」과 「황천」의 맑고 깨끗한 세계



16 하구로 옛길

Haguro Kodo

하치코 왕자가 하구로산에서 수행한 장소로 전해지고 있는 길로, 하치코 마을의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하구로산 정상까지의 옛길을 말합니다. 하치코 왕자와 깊은 인연이 있는 성지 '스메노(皇野)'에는, 옛날의 수행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유적 등이 남아 있습니다.



17 키요카와 관문 유적

Kiyokawa Sekisho-ato

예전에 모가미가와 강을 통해 배를 타고 온 참배객은 이곳에서 고쇼노오지 신사(御諸皇子神社)를 참배한 뒤, 하치코 마을에서 하구로 옛길을 거쳐 하구로산으로 향했습니다. 에도시대 초기에 데와 삼산을 방문했던 마츠오 바쇼(松尾芭蕉)가 배에서 내린 장소이기도 하여, 하이쿠 (일본 고유의 정형시의 하나) 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 갓산 신사

Gassan Jinja

갓산의 정상에 모셔진 신은 '즈쿠요미노미코토(月詭命)'입니다. 예전에는 아미타여래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둘 다 사후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과 부처입니다. 매년 8월13일에는 사이토고마(柴燈護摩, 나무나 짚 등을 쌓아 올려 만든 것으로, 수행자의 번뇌를 상징)를 태우고, 선조의 혼령을 마을로 보내는 '사이토사이(柴燈祭)'가 열립니다.



20 핫포 나나구치

Happo Nanakuchi (에도시대, 핫포 나나구치 중의 하나인 혼도지 절 입구의 모습)

갓산을 참배하기 위한 8개의 등산로 입구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등산로 입구에 사원이나 숙박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하구로산의 아라사와 입구(荒瀬口), 하구로 입구(羽黒口)로도 불림, 아은인(阿吽院)의 리지오리 입구(肘折口), 니치가츠지 절(日月寺)의 이와네사와 입구(岩根沢口), 쉼덴지 절(注連寺)의 시메카케 입구(七五三掛口), 다이니치보(大日坊)의 오오아미 입구(大網口), 다이니치지 절(大日寺)의 오오이사와 입구(大井沢口), 혼도지 절(本道寺)의 혼도지 입구, 쇼코지 절(照光寺)의 카와다이 입구(川代口, 칸에이 시대에 폐쇄)를 말합니다.



21 갓산 신사 / 이데하 신사 / 유도노산 신사 부속 갓산-이데하-유도노산 삼신사 신전 (구 니치가츠지 절 본당)

Gassan Jinja Ideha Jinja Yudonosan Jinja Sessha Gassan-Ideha-Yudonosan Sanjinja Shaden (Kyu-Nichigatsuji Hondo)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홋포 나나구치 중 하나인 이와네자와 입구(岩根沢口)에 있는 갓산·하구로산·유도노산의 삼신을 모시는 신사입니다. 구 니치가츠지 절(日月寺)은 카케이 원년(1387년)에 창건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은 재건된 것이지만, 신도와 불교가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건축물로 동북지방 최대 규모의 목조 건축물입니다.



22 유도노산 신사 (구 혼도지절)

Yudonosan Jinja (Kyu-Hondaji)

홋포 나나구치 중 하나인 '혼도지 입구(本道寺口)'에 있는 신사. 예전에는 신사 앞 마을에 약 20여채의 숙소가 있었으며, 서민신앙의 증거인 다이산토(代參塔, 대참탑) 등이 지금도 남아 있는 등, 데와 삼산이 참배객으로 붐볐던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3 혼도지 절 다이산토군

Hondoji Daisanto-gun (니시카와마치 지정 유형문화재)

옛날에 직접 방문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은 돈을 기부한 뒤 절의 주지에게 대신 참배해 주도록 부탁하는 신앙 형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부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세운 것이 '다이산토(代參塔, 대참탑)'입니다.



24 유도노산 신사 (구 다이니치지 절)

Yudonosan Jinja (Kyu-Dainichiji)

홋포 나나구치 중 하나인 '오오이사와 입구(大井沢口)'에 있는 신사. 오에이 시대(1394~1427년) 도치쇼닌(道智上人)이 '도치미치(道智道)'라고 불리는 다이니치지 절까지의 수행길을 정비한 뒤, 관동지방, 후쿠시마, 오키타마 방면에서 오는 참배객으로 붐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5 다이니치지 절 다이산토군

Dainichiji Daisanto-gun (니시카와마치 지정 유형문화재)

다이니치지 절은 에도시대 중기에 가장 번영하였으며, 그 시기에는 데와 삼산으로 향하는 수행자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경내에 남아있는 많은 다이산토와 유적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래 **26** 유도노산
Mt. Yudono

대일여래 (영원한 생명을 상징) = 밀엄정토 = 미래
오오야마즈미노미코토 (산의 신),
오오나무치노미코토 (국토의 신),
스쿠나히코나노미코토 (의술의 신)

압도적인 신비감

대자연의 생산력을 상징하는 대일여래는 만물을 잉태하는 신이며 유도노산은 '내세를 상징하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천이 솟아나오는 고신다이(ご神体, 신령이 머문다고 여겨지는 신성한 물건)를 만짐으로 인해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실감하게 되는 성지입니다.





27 로쿠쥬리고에 카이도
Rokujyurigoe Kaido

야마가타현의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을 이어주는 길로 약 100km에 이릅니다. 에도 시대에는 데와 삼산으로 가는 참배로로서 많은 이들이 이 길을 찾았습니다. 오래 전 참배객을 맞이하던 숙소나 찻집의 흔적, 야마부시가 수행을 하던 '나나즈다키(七ツ滝) 폭포'가 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29 다이니치보 니오몬
Dainichibo Niomon

핫포 나나구치 중 하나인 '오오아미 입구(大網口)'의 별당사(신사의 제사나 관리를 위해 세워진 절)인 다이니치보(大日坊)는 유도노산 수행자의 수행도장으로서 변명한 절로 죽신불 신노카이쇼닌(真如海上人)이 모셔져 있습니다. 니오몬에는 풍신과 뇌신이 안치되어 있으며 그 안쪽에 인왕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1 쉼렌지 절 시메카케 벗나무
Churenji Shimekakezakura (쓰루오카시 지정 천연기념물)

핫포 나나구치 중 하나인 '시메카케 입구(七五三掛口)'의 쉼렌지 절 경내에 있는 수령 200년의 안개벗나무로, 코보타이시(弘法大師, 흥법대사)가 이 나무 아래에서 수행했다고 전해지며, 12년마다 유도노산에 처음 사찰이 들어섰다고 하는 소의 해가 돌아오면 저절로 굵기가 걸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28 구 엔도가 3층 주택
Kyu-Endo-ke Jyutaku (야마가타현 지정 유형문화재)

로쿠쥬리고에 카이도(六十里越街道)도중에 있는 타무기마타(田妻俣)지역에는 데와 삼산으로 향하는 참배객을 맞이하던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구 엔도가 주택은 일본 전통 방식의 카야부키 초가 지붕을 사무라이의 투구 모양으로 만든 다층민가로 눈이 많이 내리는 이 지역의 생활을 지금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30 다이니치보 오단 삼나무
Dainichibo Odansugi (야마가타현 지정 천연기념물)

핫포 나나구치 중 하나인 '오오아미 입구(大網口)'의 별당사인 다이니치보(大日坊) 경내에 우뚝 서 있는 대형 삼나무로 뿌리 둘레 8m, 줄기 둘레 6m, 높이 27m, 추정수령은 1,800년입니다. 유도노산으로 향하는 참배로인 '로쿠쥬리고에 카이도(六十里越街道)'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수행자들은 이 삼나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성공적인 수행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겨울의 입산수행」과 「쇼레사이」

글 : 사카모토 다이자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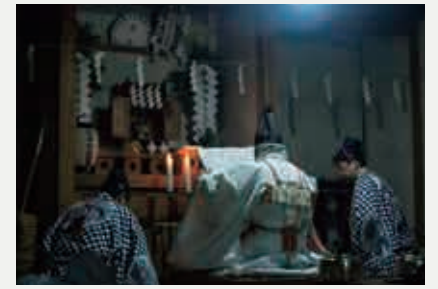
데와 삼산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는 하구로산은 야마부시의 거점으로 유명한 곳으로, 계절마다 행해지던 야마부시의 수행은 현재 가을과 겨울의 입산수행만이 남아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폐불훼석(廢仏毀釈, 불교를 배척하는 운동으로 사찰과 불상 등을 파괴한 사건)운동으로 인해 하구로산 정상에 있던 잣코지 절(寂光寺)은 폐사된 뒤 데와 삼산 신사가 되었으며, 가을의 입산수행은 산기슭에 위치한 코타쿠지 절(荒澤寺) 소젠인(正善院)과 데와 삼산 신사가 각각 행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의 입산수행은 쇼레사이라는 하구로산의 새해맞이 행사와 연계하여 행해지지만, 폐불훼석 이후에 일시적으로 중단된 뒤로는 소젠인 코가네도에서 행해졌으며, 메이지 시대 중기부터는 산 정상에 있는 데와 삼산 신사에서 행해지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쇼레사이는 매년 하구로산 기슭에 위치한 토게 마을에서 열리는 행사로 마츠히지리(松聖)라고 불리는 두 사람의 야마부시가 선출되어, 선달 그믐까지 오곡(벼, 보리, 대두, 팥, 깨 등)의 곡물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100일간의 기도 수행을 합니다. 이것이 겨울의 입산수행입니다. 쇼레사이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수행의 성과를 겨룹니다. 이것을 겐쿠라베(験競べ)라고 합니다.

그러면 '쇼레사이'라는 것은 어떤 축제일까요? 1,300년 전 '소란키'라는 도깨비가 이 지역에 나타나 검은 구름 사이로 불을 토해내며 산의 위쪽에서부터 악취를 내뿜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를 올리자 "도깨비의 모형을 만들어서 불태워라"라는 계시가 내려와, 계시를 받은 대로 했더니 도깨비를 퇴치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쇼레사이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츝제는 옛 이야기를 재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선달 그믐 오후 3시경에 짚을 엮어 만든 도깨비 모형인 오타이마츠(大松明)를 베어 죽이는 '츠나마키(綱まき)'가 행해집니다. 그러나 강한 생명력을 가진 도깨비는 해가 지면 부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루키 나오시'라는 의식을 통해 원래의 절반 크기인 오타이마츠를 다시 만듭니다. 이것은 도깨비가 부활하여 재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지면, 산 정상에 있는 신사의 앞마당에서 젊은이들이 오타이마츠를 끌어내어 불태워 없애는 '오타이마츠 끌기' 의식이 행해집니다. 이를 통해 도깨비를 퇴치함으로써 드디어 하구로산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어서 새해에 새롭게 태어난 세상 중 동쪽의 33개 지역을 하구로 야마부시의 영토로, 서쪽의 24개 지역을 쿠마노 야마부시의 영토로, 큐슈의 9개 지역을 히코산 야마부시의 영토로 정하는 '쿠니와케신지(国分神事)' 행사가 치뤄집니다.

하구로 야마부시의 영토인 33개 지역은 메이지 시대 이전에 하구로산 정상에 모셔져 있던 관음보살이 33개의 모습으로 나뉘어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소젠인 코가네도는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33개의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으며, 선달 그믐날에는 기도 의식이 행해지고 있어, 엄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심오한 의미가 숨어있는 쇼레사이를 꼼꼼하게 모두 살펴보는 것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상이 저의 눈으로 본 쇼레사이입니다.

산기슭에서 승문(繩文, 조문)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가 행해져 왔다고 추측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때때로는 변화해 가면서도 지역 주민들에 의해 지켜져 내려온 축제를 살펴본다면, 그 깊은 곳에 축적되어 온 아득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